

잠깐, 한 권쯤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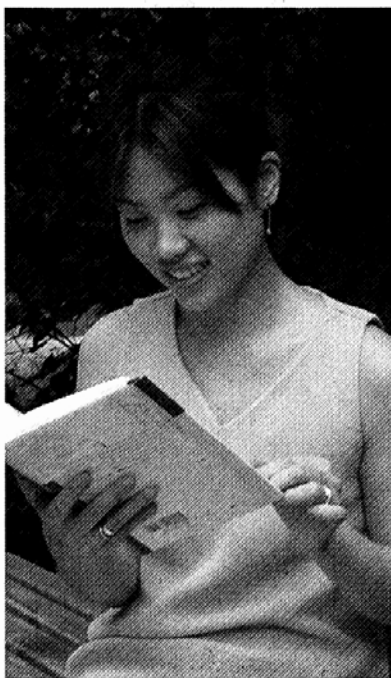
방학에다 휴가철이다. 이런 때 책 읽기를 권한다. 이는 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때론 농담 속에 진심이 담기는 법. 덜컥덜컥하는 기차 속에서 혹은 계곡 속에 발을 담근 채, 책이라는 거

울 속에 나를 비추보자. 배낭 속에 넣어 갈 수 있도록 부피가 작고 부담 없이 읽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책을 골랐다. 책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책과 함께 떠나는 휴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성우·지현 스님 엮음, 민족사, 값 3천원) : 경전 속에는 명구들이 참 많다.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그리고 초기 경전 속에 들어 있는 명구들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금언들이다. 생활의 지침이나 삶의 교훈으로 삼아도 좋은 명구들을 경전이나 고승들의 어록·문집에서 꺼려 뽑아 엮은 이 책은, 인생-잠 살을 위하여, 수행-피안으로 가는 길 등 3개의 장으로 나눠 참된 인생을 위한 부처님 말씀 300개를 실었다.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명정 스님 편역, 좋은 날, 값 9천원) : 큰스님들이 보낸 편지 모음. "가을 바람이 펼쳤던 서책의 갈피를 넘깁니다. 문밖에는 낙엽지는 소리가 사락사락 컹가를 간지럽게 합니다. 만행 끝에 머문 해산사 문지방



〈선방일기〉(지혜 스님 지음, 여시아문, 5천원) : 일반인들에게 '신비의 장소'인 선방에서의 일과 수행담이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선방에 들어가는 일부터 해제한 뒤 산사에서 내려오기까지 3개월간의 일을 담은 이 책은, 절제와 단정, 소임, 지대 방 생활 등 선방의 생태와 풍속을 들려준다.

산사에서... 주옥같은 고승 법문
마음을 비우면... 달라이 라마 명상집
길 끝나는 곳에... 호젓한 산사 안내서
무서록 현대수필사의 백미

님들에 얽힌 일화, 일종식(一種食) 하루 한끼 식사를 하는 스님, 장좌불와하는 스님, 3개월 내내 묵언하는 스님 등 선승들에 대한 기록도 인상적이다.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명정 스님 편역, 좋은 날, 값 9천원) : 큰스님들이 보낸 편지 모음. "가을 바람이 펼쳤던 서책의 갈피를 넘깁니다. 문밖에는 낙엽지는 소리가 사락사락 컹가를 간지럽게 합니다. 만행 끝에 머문 해산사 문지방

에는 가을이 때늦은 붓짐을 풀어놓고 나를 유혹하는 듯 합니다." 고승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삼목 번뇌'를 비롯하여 110여 편의 편지글을 엮었다.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정찬주 지음, 해들누리, 값 8천원) : 전국의 암자 순례기와 명상 글을 한데 모은 산문집. 안개도 쉬어 간다는 고층 거금도 송광암, 안동 천등산 국사암, 하동 지리산의 국사암 등의 암자 순례기와 '마음의 바리 때', '삿됨을 씻는 마음, 소나무 이야기' 등 마음을 맑혀주는 명상 글을 담았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달라이 라마 지음, 공경회 옮김, 문이당, 값 7천원)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츠오의 명상록.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사상·종교의 대립,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밝고 맑은 마음과 참 지혜로 해결할 것을 들려준다. 책의 원제는 '평온으로 가는 길-매일의 명상'으로 하루에 한권씩 읽고 명상할 수 있도록 365개의 짧은 단상들이 일기 형식으로 묶여져 있다.

〈유배지에서 온 편지〉(정약용 지음, 박석무 엮음, 창작과비평사, 값 8천원) :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 중에 아들과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 서한집. 1801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6편을 비롯해 모두 52편의 글을 수록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공부든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하는가를 간곡한 어조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무서록〉(이태준 지음, 범우사, 값 6천원) : 한국 현대 수필사를 기록할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태준의 수필집. '백', '물', '역사',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등 한글 문장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수필 42편이 실려 있다.

김종근 기자 gama@buddhania.com

예수 청년시절 인도-네팔 등 순례

‘성경엔 없다’ 고준환 교수 지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마하트 마간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의 시작이며 중심이긴 하지만, 예수 자신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다만 한 가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아니며, 예수를 통해서만 기독교가 탄생하지는 않았다.' (랍 아스피스, 예수 존재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답론은 어찌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심지어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와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도신경에 있는 동정녀 탄생과 육체부활은 예수의 사상이 아니라 고대까지 말할 정도다.

고준환(경기대 법학과) 교수 쓴 <성경엔 없다>(불지사가 눈에 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책은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재조명하고, 그리스도교의 개괄적 역사와 문제점 등을 밝힌 연구서다. 8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문헌만으로도 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지은이는 지금 전승되고 있는 성경은 물론 성

경에는 없는 많은 문헌 자료들을 참고해, 예수의 탄생·결혼·인도 순례·십자가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다. 이 가운데 지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12세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의 18년 동안의 행적이 현재의 그리스도교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 기간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네팔과의 만남 등 추적 잃어버린 12~30세 조영

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인도·네팔·티베트·이집트 등 7개국을 다니며 불교·브라만교·조로아스터교·헬레니즘·헤브라이즘을 공부했다고 밝힌다. 카필라성·베나레스·라다크 등에 머무르면서는 불경을 연구해 성현으로 존경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지은이는 예수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입사체현으로 연흔한 십자가 사건에서 소생한 후 다시 살아나 카시미르 안지말에 묻힐 때까지 인도 여러 지역에서 가르



터리(생부는 누구인가), 예수의 어린시절, 예수의 결혼과 가족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네팔의 만남, 그리스도교와 한국의 미래 등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역사의 진실을 위해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베일을 하나씩 벗겨 나간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기독교 홍보책이냐는 결코 아니다. 왜곡된 그리스도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는 것, 다시말해 종교적 배타성을 제거해 21세기 상생의 종교평화시대를 열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값 9천원.

침을 펴 이사(Isa)·유즈 아사프(Yuz Asaf) 대사나 보디사트바(보살)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지은이는 먼저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을 살펴보고, 예수 탄생의 미스터리(생부는 누구인가), 예수의 어린시절, 예수의 결혼과 가족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네팔의 만남, 그리스도교와 한국의 미래 등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역사의 진실을 위해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베일을 하나씩 벗겨 나간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기독교 홍보책이냐는 결코 아니다. 왜곡된 그리스도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는 것, 다시말해 종교적 배타성을 제거해 21세기 상생의 종교평화시대를 열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수행 외길 비구니 33명 평전

‘깨달음의 꽃2’ 하춘생 지음



한국 불교사에 있어 비구니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불교전래 이후 여성성불 불가론을 내세워 깨침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敬戒)로 비구니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사에는 희망 높은 여러 비구니들이 수행과 불발행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한국 불교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고 있고 지내왔을 뿐이다.

신간 <깨달음의 꽃 2> (여래는 끝없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묵묵히 수행에 전념한 비구니 스님들의 행장을 발굴한 한국 불교 비구니 평전)이다. 지난 98년 출간한 <깨달음의 꽃> 후속 편으로, 지은이는 주간 불교신문 하춘생 기자. 그가 10여 년 동안 발굴한 비구니 스님들 모두 33명으로 그들의 전법과 수행 그리고 가르침을 위한 원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승은 비구만이 존재한다. 특히 근세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한다. 한 치의 방일도 허락하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지혜와 구도과정을 빼놓고는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스님·재가자 등 3천여명 행장

불교TV '인물로 보는 한국 불교'...

〈인물로 본 한국 불교 1600년사〉(불교TV)가 나왔다. 이 불교인물록에는 우리나라 고승 1,000여 명의 행장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님 1,200명, 재가불자 1,000여 명의 이력이 담겨 있다. 고승의 경우 삼국·고려·조선시대 시대별로 나눠 수행과정을 행장을 수록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소속종단, 수계, 출가이력을 비롯하여 좋아하는 법문, 주요 활동 사항 등을 기록해 활동상을 일목요연하

게 볼 수 있게 했다. 재가불자는 교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급을 중심으로 학력과 현직, 사회 이력, 수행방법, 존경하는 스님 등을 기록했다. 인물사진을 실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인물록과 다른 점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불교전래 이후 1,600년의 불교약사를 살필 수 있는 한국 불교사를 비롯해 불교문화재 현황, 팔만대장경 경전명, 40여 종단의 연혁, 인물 및 사건을 통한 불교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한국 불교 1,600년 연표도 수록했다. 값 15만 원. 김종근 기자

자기탐구·헌신 끝에 오는 깨침

‘바가반이 말씀하신...’ 대성 스님 옮김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진아를 깨달은 뒤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래서 마하르쉬의 가르침은 침묵으로 시작되어 침묵으로 끝났다고 한다. 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에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후에는 아쉬람에서 인도에 및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했다.

〈바가반이 말씀하신 가르침〉(따구사)은 마하르쉬가 설했던 구두 가르침을 제자인 아서 오즈번(1906~1970)이 주체별로 가려 뽑아 엮은 어록이다. 책의 많은 문단에서 끊임없이 상기되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탐구와 자신의 예고를 신이나 스승에게 내 맡기는 헌신을 통한 진아의 발견이다.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들이다.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거울 | 원성 | 이레 |
| 2 | 선방일기 | 지현 | 여시아문 |
| 3 | 티베트 밀교 요가 | 유기천 | 정신세계사 |
| 4 | 법구경(작은경전) | 지현 | 민족사 |
| 5 | 선의 나침반 | 원각 | 열림원 |
| 6 | 나의 행자시절 | 박원자 | 다함미디어 |
| 7 | 현수경 현수신앙 | 혜국 | 효림 |
| 8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성우·지현 | 민족사 |
| 9 | 산하대지가 참빛이다 | 양형진 | 장경각 |
| 10 | 오직 할 뿐 | 무광외 | 물병자리 |

도서 안내: (02)737-0695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르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베트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펠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베트 사자의 서>!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펠츠의 티베트 라이브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펠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카지 디와삼들의 제자가 되었고,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목원해냈다. <티베트 사자의 서>, <티베트 해탈의 서>, <티베트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베트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베트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티베트 밀교 요가

라마 카지 디와삼들 번역 | 에반스 펠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베트 성자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마르파·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베트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결!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베트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펠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름 그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 왔는가? 8세기경, 티베트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신분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려·불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407) / 팩스: (02)747-7034 /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우체국·농협 지리번호: 3006577, 휴빌림: 009-21-1159-604(국민은행, 예금주 송승헌)